

"제작진이 짠 거 아닌가?"...'나는 솔로' 2차 랜덤 데이트에 '경악'

등록 2023.09.20 01:01:00



[서울=뉴시스] ENA·SBS PLUS 리얼 데이트 프로그램 '나는 SOLO' 예고. (사진= ENA, SBS PLUS 제공) 2023.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령 인턴 기자 = '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가 또 한 번의 반전을 예고한다.

20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ENA·SBS PLUS의 리얼 데이트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2차 랜덤 데이트에 돌입한 '솔로 나라 16번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16기 솔로남녀는 한복 데이트에 이어 '솔로나라' 입성 전 미리 제출한 사진들로 2차 랜덤 데이트에 돌입한다. 솔로남은 솔로녀들의 어머니 사진을, 솔로녀는 솔로남들의 아버지 사진을 보고 골라 서로 매칭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또한 솔로남녀는 마음에 드는 아기 사진도 선택하는데 여기서 서로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고른 남녀끼리 데이트를 하게 된다.

솔로남녀의 부모 사진으로 매칭된 커플을 확인한 MC 이이경은 "어떻게 이렇게 돼?"라며 경악한다. 송해나 역시 "어머! 대박!"이라고 외친다. 하늘이 제대로 점찍은 듯한 16기 '운명 커플' 탄생에 데프콘은 "맺어지고 있는 거지"라고 핑크빛 결말을 예언한다.

솔로남녀들도 '랜덤 데이트'의 주인공이 된 커플을 바라보면서 소름과 경악을 표한다. 한 솔로녀는 "왜 이렇게 웃긴 거야"라며 놀라워한다. 또 다른 솔로남도 "제작진이 짠 거 아닌가?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냐?"라며 헛웃음을 터뜨린다.

뒤이어 서로의 어릴 적 사진을 고르는 랜덤 타임에서도 운명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이경은 "어떻게 이렇게 돼, 또?"라며 혀를 내두르고 한 솔로녀는 "뭐야 드라마야?"라고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uddl53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